

# 드론축구로, 드론낙시 분위기 '업'

### 전주시 드론축구선수단, 세계드론낙시대회 참가... 전시부스 운영·시범경기 선보여

전주시 드론축구단이 세계 최초로 열린 드론낙시대회에서 드론축구 시범경기를 선보이면서 드론기반 ICT 융복합레저스포츠 붐 조성에 나섰다.

시는 13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해상목장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드론낙시대회'에서 드론축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드론축구 시범경기 및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세계일보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재을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조문수 한국드론산업협회장,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주시와 캠프종합기술

원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드론 동호인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드론축구 이벤트를 선보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첨단 미래형 레저스포츠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먼저, 개회식 퍼포먼스로 드론을 활용한 인명 재난구조 시연을 선보여 안전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켰다.

또한, 가로 12m, 세로 6m, 높이 4m 크기의 드론낙시체험장(드론축구 시범경기장)에서는 전주시 드론축구 선수단이 3:3 시범경기를 선보였으며, 드론축구 시연과 체험프로그램도 열려 세계드론낙시대회를 찾은 많

은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드론축구 홍보부스에서는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드론축구공 제품들이 전시됐으며, 홍보용 모니터를 통해 글로벌 레저스포츠 드론축구를 알리는 홍보동영상이 상영됐다. 이 자리에서는 드론축구 창단문의와 드론축구공 구매 상담 등도 이어져 드론레저스포츠 산업화를 향한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갔다.

이밖에, 드론낙리기 체험장에서는 '드론 풍선 터뜨리기'와 같은 이색적인 행사들도 준비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시가 아쉽게 개발한

'유소년용 드론축구'와 드론과 첨단 ICT 기술, 문화예술 장르가 융합된 신개념 스마트 콘텐츠인 '드론 예술 공연' 홍보도 진행됐다.

시는 세계최초로 열린 드론을 활용한 낙시대회에서 드론축구의 매력을 소개하면서 드론축구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물론, 전주가 '드론 메카도시'로 위상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62개팀 18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제1회 세계드론낙시대회'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낙시경기와 함께 어린이 드론낙시 체험전, 드론낙리기 체험전, 해양안전체험(구명조끼 착용체험 및 심폐소생술 체험)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기동취재반

## 학예사가 들려주는 한옥마을이야기

### 한옥마을역사관, 매주 주말 해설프로그램 운영

연간 1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한옥마을의 역사와 유래, 변천과정이 담긴 한옥마을역사관에 전문 학예사의 해설이 곁들여진다.

전주시는 매주 주말 관광객을 위한 정기해설 프로그램인 '학예사가 들려주는 전주한옥마을 이야기'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주한옥마을 역사관은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결과 연간 1100만 7033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해마다 관광객 수가 늘면서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전주한옥마을의 어제와 오늘, 내일의 모습이 담긴 공간으로 지난날 공식 개관했다.

이에, 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올 연말까지 주말 해설 전문 학예사와 함께 역사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에서 전주한옥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기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기동취재반

먼저, 상설전시실에서는 왕조의 성지로 추앙받았던 조선 초부터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반발로 대규모 한옥촌이 형성된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지가 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주한옥마을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대한 해설이 제공된다.

또한, '전주한옥마을 근대로의 여행'이 전시되고 있는 기획전시실에서는 경기전과 전동성당, 백양 메리야스, 문화연필 등의 옛 사진을 비롯해 전주한옥마을에 숨겨진 이야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의 모습이 담긴 공간으로 지난날 공식 개관했다.

이와 함께, 한옥마을역사관에서는 매주 봄 여행주간 및 수확여행 등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해설도 진행하고 있다. 단체해설을 원하는 20인 이상의 단체는 해설희망일 3일전까지 한옥마을역사관(063-286-5125)으로 전화 예약하면 되며,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기동취재반

##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여기 다 있다'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17일 고용·복지 만남의 날 행사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행사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전주고용복지+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2018 전주고용·복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전주고용복지+센터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현장면접 및 채용, 복지상담, 4차 산업 직업 관련 체험 및 상담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자 200여명과 (주)뉴코스메틱, 한살어패럴, 드림사 회서비스센터, (주)미래서비스, 가은요양원, 엠마오사랑병원, 연수요양병원, 실버복지센터, (주)에스와이에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사조화인코리아, (주)엔에스산업 완주공장, (주)갈승산업, 국민종합주택관리, (주)삼우냉동, 엄지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20개 업체, 간접 채용 계획이 있는 구인자 등 총 50여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면접 및 채용에 나서게 된다.

또한, 전주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이 4차 산업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3D프린팅, 3D펜, 코딩(SW)교육에 대한 상담 및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기동취재반



“익산세무서 이전 반대” 익산시 남중동 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익산세무서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1일 익산세무서 앞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주민 등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의료과실 유죄"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 강세훈(48)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

리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글을 올리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씨는 신씨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신씨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반

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2일 서울아산 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또 강씨는 신씨가 사망한 이후인 그해 12월 의사들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

##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시민참여 완성도 향상

### 시, 품꾼 공모사업 추진 비상조경 등 9개 팀 선정

전주 원도심 곳곳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전주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됐다.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는 전주시가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도심 100만평(약 330만㎡)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재생해 아시아의 문화심장으로 키워 전주가 파리나 로마와 같은 위대한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담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전주시는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실시하는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품꾼공모사업' 지원대상으로 최종 9개팀을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26까지 진행된 이번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품꾼 공모 사업에는 사회·환경, 문화·예술, 교육·복지, 홍보·소통, 도시거커리 등 주제를 가지고 총 23개 단체가 접수했으며, 시는 공동체성과 공익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심사기준을 가지고 9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9개 팀에는 팀당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9개 팀은 △버스커즈 팩토리 △비상조경 △수달 △아이노우 △울타리달 △전북대학교 캠퍼스디자인팀 △직조자매회 △푸른돌고래 △2030 영상제작단 등이다.

이외에도 △남부시장 달빛정원에 세대간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설치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전북대학교 캠퍼스디자인팀 △블롭과 피규어 등을 활용해 학생·주민들을 위한 창작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푸른돌고래'팀 △원도심 내에서 미니다큐를 제작하고 골목영화제를 진행해 원도심을 홍보하는 '2030 영상 제작단' 팀이 이번 품꾼 공모에 선정됐다. /기동취재반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